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4. 20.(목) 11:00,
(지면) 2023. 4. 21.(금) 조간

배포 2023. 4. 20.(목) 09:00

범정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, 국민 영양 관리와 푸드테크 등 산업발전에 기여

- 민간 분야의 활용방안 적극 발굴을 위한 민·관협의체 구성

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·학계·유관기관·정부가 협력하는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다. 2023년도 제1차 협의회는 4월 21일(금) 14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다.

그간 각 부처는 농산물, 수산물,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·수집하여 공개해 왔다.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,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·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.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관계부처(농림축산식품부·농촌진흥청, 교육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)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.

지난해 6월, 각 부처별로 생산·수집한 4만 6천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였다.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여 누적 6만 6천여 건*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하여 제공하였다.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최신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.

* ① 식품원재료 3,593개(농축임산물 1,841개, 수산물 1,752개), ② 가공식품 54,759개, ③ 음식 8,303개

소관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협력·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등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·관 협의체인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다.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식품영양 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전반과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제공으로 푸드테크·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. 또한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학교급식 시스템(4세대 지능형 나이스)과 공공급식플랫폼 등에 연계·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청소년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(www.data.go.kr)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, 오픈 에이피아이(API) 형태로도 제공된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호종 (044-201-2271)
		담당자	사무관	양유진 (044-201-2272)
	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희권 (044-203-6877)
		담당자	사무관	임영인 (044-203-6659)
	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승준 (044-200-54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엽 (044-200-5481)
	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종동 (043-719-2252)
		담당자	사무관	강행화 (043-719-2260)
	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	책임자	과 장	유선미 (063-238-3551)
		담당자	연구관	권지영 (063-238-3579)
	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	책임자	과 장	오경원 (043-719-7460)
		담당자	연구관	최선헌 (043-719-7461)
	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	책임자	과 장	목종수 (051-720-2610)
		담당자	연구관	최지호 (051-720-2662)